

## 여성학 입문 : 포스트모던 시대의 여성

### 제7강 여성과 문화

강사 : 박남희

#### 여성과 문화

##### ◆ 여성문화의 현주소

##### ※ 학습목표

현대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여성의 위치는 어디쯤인지 알아본다.

##### ▲ 여성과 문화

문화라는 것은 옛날에는 기득권층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앞에 대중이라는 것이 붙어서, 대중문화가 시대를 대표하기도 하며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문화가 되었다. 누구나 문화를 즐기고 그 영향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드물게 된 것이다. 제한된 사회, 제한된 문화를 가졌던 여성도 밖으로 나온다. 현대 자본주의사회, 정보사회에서 여성은 어떤 문화를 창출하고, 어떤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있다. 기존의 여성문제들이 개선되고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지금 우리 세대 여성들은 자신의 의사를 온전히 표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에게 기존의 문화의 뿌리가 내재되어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여성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의 문화를 여성이 제대로 읽어낼 수 있을 때, 지금까지 가동한 여성들의 저력을 유지하면서, 새 시대와 더불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 여성문화의 현주소

이전에는 자본의 논리가 문화를 지배했기 때문에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정보화 시대다. 정보는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고 주어져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를 대할 수 있는 기회에서 여성들이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모르면, 여성은 문화의 핵심에서 또 주변화될 수밖에 없다. 여성 스스로가 시대를 정확하게 읽어내려면, 먼저 깨어있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더불어 오늘날 우리에게 행해지고 있는 것들을 파악해내려고 하는 의지도 중요하다. 예전에 여성의 문화라고 하면 문화센터의 꽃꽂이, 노래교실 등 제한된 영역안의 문화였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놓은 좁은 영역의 문화에 참

여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요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안목을 가져야 한다.

#### ▲ 5T 산업

그렇다면 현대에는 어떤 산업들이 문화를 주도하고 있을까. 5T 산업이 그것이다.

##### \* 5T 산업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BT(Biology Technology) 생명공학기술

ST(Space Technology) 우주항공기술

NT(Nano Technology) 나노기술

ET(Environment Technology) 환경기술

5T 산업은 영역을 넘나들며 서로를 보완, 발전시킨다. BT에서 게놈지도를 그려낼 수 있었던 것도 IT의 발전 덕분이고 ST도 IT와 NT에 빚지고 있다. 이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현대문화를 주도해나가고 있다.

#### ▲ 주변에서 중앙으로

5T 산업 등 시대를 이끌어가는 문화, 산업에 여성들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여성 스스로가 남성의 일이라고 치부해버리지는 않는가. 여성은 이제 주변부에 머물 것이 아니라 - 중앙과 주변의 구분이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 중앙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시대의 흐름, 그 중심을 읽어내지 못하면 여성들은 단절되기 마련이다.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화두를 자기 삶 속에서 물어내갈 수 있는 여성이, 진정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시대가 만들어가고 추구해야 할 여성이 아닐까. 여성의 장점인 세밀함 등을 살려, 주도적인 산업에 적극 참여하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다. 모든 여성이 그렇게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가정주부라도 정보에 대한 깨어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누군가 잘못된 정보를 주었다고 치자. 인터넷 등은 익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규명과 원인파악이 쉽지 않다. 정보를 취하는 사람이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 ▲ 영역을 넘나드는 문화

서양화 같은 경우 그림의 소재를 보면 작가의 성별을 파악하기 쉬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드러냄과 감춤의 미학이다. 작가의 성별이 굳이 드러나지 않고, 감상자에게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 좋은 작품이 아닐까. 그러기 위해서는 작가가 기존의 정형화된 여성적인 것으로부터, 한 걸음 뒤로 물러날 수 있어야 한다. 또 정보는 예술에도 작용한다. 새로운 기법이나 그 시대의 화두를 표현하려고 하는 시도가 예술작품에 구현되어야 한다. 요즘 미술계에서는 DNA ART가 등장했다. 인간의 DNA를 그림에 구현한 것이다. 기존의 것만을 답습하는 예술이 아닌, 새롭고 살아있는 예술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역을 넘나들 줄 알아야 한다.

DNA ART의 한 작품

## ◆ 한국문화

## ※ 학습목표

우리문화와 국민성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이 어디서 기인했는지 알아본다.

## ▲ 남일 챙기기 바쁜 한국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쁘다. 결혼식, 돌잔치, 모임 여기저기 얼굴도장을 찍어야 한다. 그러나 서양은 자신이 참여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엄격히 구분해, 형식적으로 얼굴을 내미느라 시간을 소비하지 않는다.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을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서양의 문화는 자기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 여성들을 보면 치장하는데 많은 시간을 쓴다. 아침에 일어나서 문 열고 나갈 때까지 꾸미느라 한 시간은 걸린다. 또 옷이나 화장품을 사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시간을 소비한다. 서양의 학생들은 수수한 차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하는 시간이 적다. 식생활도 우리는 조리시간이 길고 과정이 복잡하지만, 서양은 저녁을 제외하고는 간편하게 해결하는 문화다. 이렇게 우리의 사회풍조나 습관은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

## ▲ 한국의 IT산업

우리나라는 그간 IT산업에 강한 면모를 보였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우리나라의 국토가 좁기 때문에 발달한 집약적인 사고방식이, IT분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또 교육열이 높고 유행에 민감한 국민성은 컴퓨터의 보급에 기여했고, 빠른 것을 좋아하는 성질은, 끊임없이 첨단을 추구하는 IT산업의 특성에 맞아떨어졌다. 그러나 그간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IT산업은 세계의 정상에 서지는 못하고 있다. 사실 IT의 핵심은 보안기술이다. 아무리 중요한 기술이나 자산이 있어도 해킹당하거나 도난당하면 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안의 핵심기술은 외국기업이 가지고 있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고방식이 가져온 맹점이 아닐까.

## ▲ 큰 것을 좋아하는 문화

우리나라에는 아직 외형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권력을 잡으면 건물을 지어 과시하고 큰 집, 큰 차에 집착한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옷만 달리 입었지 남에게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는 마인드는 여전하다.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여성은 행복할 수 없다. 영국의 학교를 견학한 적이 있다. 학습 환경이나 기자재 등이 우리보다 훨씬 좋았다. 지역사회에서 학교에 자기 아이들을 맡기면서 기부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기 힘들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학교에 투자하기보다는 즉각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직접 자식의 사교육 등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이런 마인드는 정치, 사회 각 분야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나무보다 더 많은 플래카드들. 쓰레기 줍는 활동을 하면서 유니폼을 맞추고 깃발을 드는 모습들. 광풍과도 같은 선거운동을 하며 자기 존재를 인식하는 모습들.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평가받고 싶은 마인드를 볼 수 있다.

## ▲ 내 것이 아닌 우리 것으로

이런 한국인의 특성은 어디서 기인했을까. 식민지시대와 전쟁 등을 겪으며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한다. 믿을 것이라고는 손안에 쥔 현금처럼 눈에 보이는 것, 내 것이어야 한다. 그런

태도는 가족이기주의로 나아가기도 한다. 남성들은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태도가 희석되었지만 여성에게는 그럴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여성은 내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이런 여성이 바뀌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 그래서 여성 스스로가 우리 시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불특정다수를 향한 범죄가 이뤄지고 혼자서 잘 살 수 없는 시대다. 지역사회까지라도 나와야 한다. 내 아이뿐만 아니라 내 아이들의 친구들의 문제에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학교문제, 청소년문제,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내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사회를 아우를 수 있는 안목과 태도가 필요하다.

##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 ◆ 바람직한 남녀관계

#### ※ 학습목표

남성과 여성의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해본다.

#### ▲ 정보관리의 중요성

이미지로 먹고 사는 현대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신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PR시대라고도 한다. 이것은 긍정적인 효과를 낳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다. 먼저 개인의 정보유출 문제를 들 수 있겠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이름을 물어본다. 이것은 개인의 정보유출을 유발하는 행위다. 상대의 정보를 알수록 컨트롤하기가 쉽다. 그러므로 이름이나 나이를 묻는 등의 행위는 서양에서는 실례로 여겨진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생산적인 대화는 하지 않는다. 버스에서 휴대폰으로 자신의 신변잡기를 떠들며 무의식중에 자신의 정보를 흘린다. 현대사회에서는 정보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나 산업에서도 정보에 목숨 건다. 그러나 적절한 보안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다. 올바른 정보를 얻고 올바른 사람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 현대에서는 중요한 일이다.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어야 한다. 여자 팔자는 뒤옹박 팔자라는 정보를 얻을 것인가, 여성도 시대를 풍미하며 자신의 꿈과 희망을 성취할 수 있다는 정보를 얻을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 ▲ 좋은 남성이란

여성들은 그동안 조그만 그릇 안에 있어서 기회가 많지 않았다. 기회가 오면 농칠세라 감사해하며 수용했다. 그러나 여성이 넓은 세상에 나오면서 조급해질 이유가 없어진다.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성들은 남성의 일방적인 행동이나 스킨십을 매력으로 여기고, 수동적으로 남성의 결정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판단하지 않고, 남성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이끄는 대로 끌려 다니면서도 남성의 자상함(?)에 그저 감탄한다. 그러나 그런 남성이 과연 여성에게 좋은 남성인가. 이런 경우 여성은 자신의 정보를 남성에게 넘겼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여성에게 좋은 남성이란 여성을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여성이 아니라, 여성의 재능과 역량이 삶 속에서 실현되도록 뒤에서 불을 밝혀주는 남성이 아닐까. 또한 누가 누구를 소유하는 것이 아닌 둘이 같이 만들어가는 가치관, 삶이 중요하다.

#### 드라마 <불꽃>

- 여주인공은 왜 완벽해 보이는 남편을 두고 불륜을 저질렀을까. 조건보다는 상호간의 이해가 더 소중했기 때문이 아닐까.

#### ▲ 함께하는 인생의 설계

여성들은 인생의 설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20대에는 평생 자신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행복하게 해줄 남성을, 마치 보험을 들듯이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남성에게 기대는 여

성은 남성의 몰락한다면 같이 무너지는 것이다. 타인과 상관없이 자신을 힘으로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생명연장으로 삶이 길어졌다. 가족과 회사를 위한 삶을 완수한 후의 두 번째 삶에 대비해야 한다. 미리 예견하고 준비한 여성은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다. 또한 그런 준비는 미처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남성에게, 미리 다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시지프스처럼 매일 돌덩이를 굴러 올리는 것 같은 무한경쟁시대에 사는 남성들은, 명퇴라든지 회사로부터 소외되면 인생의 의미를 잃는다. 이 때 현명한 여성은 두 번째 삶으로의 다리를 놓아준다. 겸손하게 사회와 더불어 봉사활동도 하면서 사회를 밝게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점점 더 눈에 보이는 게 강화된다. 그럴수록 특히 남성들의 세계, 사회는 고달파진다. 가족에게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젠 척’ 하는 남성들은 고독하다. 그래서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위안 받기도 한다. 우리의 삶은 가면의 삶이다. 너무 밀착되어서 가면인지 얼굴인지 구분되지 않는 삶. 이것 벗어던지는 것을 남성 스스로는 할 수 없다. 회복해나가고 개선할 수 있는 열쇠는 여성이 쥐고 있다.

#### ◆ 더불어 사는 삶

##### ※ 학습목표

여성이 타인과 사회와 어떻게 더불어 살 것인지 생각해본다.

##### ▲ 서로의 짐 나누기

여성은 따뜻함과 배려로 남성의 가면을 벗도록 해주어야 한다. 여성의 인내와 희생을 이야기 함이 아니다. 남성의 짐을 나누어지라는 것이다. 남녀가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진다면,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다. 그동안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의 고유성을 인정하며 사회에서의 역할을 할 때, 우리 사회는 정제되지 않고 생동감 있게 발전할 것이다.

##### ▲ 중심을 가지자

우리는 삶의 정중앙에 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쏟아지는 정보에 항상 귀기울이며 사회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우리 시대, 우리나라, 나는 지금 어디에 서있는지 알아야 한다. 요즘은 다중사회다. 중앙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중앙일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다. 내가 중앙일 때 이 사람도 중앙으로 동등해진다. 내가 중앙이 안 되면, 다른 것들이 비대해져서 나는 사회를 기형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중앙이 될 수 있다는 것,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문제이자, 동시에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 ▲ 한국 여성현실의 어두운 모습

한국 여성의 문화코드는 무엇일까. 건질 것이 있는가. 외국대학 총장이 공공연하게 한국 여성들을 매춘부 취급한 발언이 문제가 된 일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근거 없는 이야기일까. 실제로 우리나라의 미성년자 여성의 원조교제 문제가 심각하다. 원조교제는 왜 하는가. 돈을 벌기 위해서다. 돈은 왜 버는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다. 물건은 왜 사는가. 남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다. 외국의 여성 앵커들은 수수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연예인보다 더 치장한다. 온 나라가 외모지상주의에 빠져있는 것이다. 이런 외모지상주의는 남성이 부추겼지만,

여성이 당당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심화되었다. 여성은 남성에 의존하던 시대를 벗어나 다른 기회들이 있는 시대에 살게 되었음에도, 외모지상주의를 타파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거기에 끌려 다니고 있다. 또 우리나라에게 붙은 오명 중 하나가 낙태공화국이다. 성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가 무지를 낳은 것에 원인이 있다. 또 남성들은 성경험을 능력과 동일화하며 여성들을 하나의 성적 대상으로 본다. 그런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아끼고, 성적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화장하고 성형 수술하는 것이 자신의 가치를 창출하는 일인지 아니면 자신을 물신화시키는 일인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

#### ▲ 소비내용 변화의 필요성

자본주의는 대량생산을 전제로 한다. 대량생산한 것을 소비시키지 못하면 자본주의는 끝이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소비하도록 유혹한다.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 있는 주체가 아닌, 소비하는 주체로 전락되게 길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새로운 것을 탐낸다. 소비를 안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내용을 바꿔야 된다.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소비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위임해, 여성들이 경제권을 가지고 소비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러나 여성들은 사회경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잘 못 느낀다. 사회정의와 소비에 대한 인격의 문제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여성이 되어야 한다.

#### ▲ 더불어 사는 삶 - 외국인 문제

현재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는 얘기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농촌에 가면 3.40% 이상이 외국여성으로 채워져 있다. 남성들의 결혼에 대한 해결책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제는 여성들이 숙제를 풀 차례다. 외국여성들과 그 아이들은 우리와 더불어 산다. 그러므로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다.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는 외국 여성의 문제나,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당하는 아이들을, 이 땅에 사는 타인이 되지 않도록 여성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또한 한국 여성과 외국남성이 결합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 땅에서 자라지만 한국인이 아니다. 이방인인 것이다. 이런 문제를 잘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문화라는 것은 문화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그 밖의 요인으로 인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여성은 이제 정치, 경제는 물론 우리들이 놓치기 쉬운 문제까지도 살피고 다리를 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다양성이 인정되며 새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 ▲ 외모가 아닌 내면을 바꾸자

방송인 이다도시를 보면, 특별한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TV에서 왕성한 활동을 한다. 그를 보고 있으면 밝고 적극적이며 호기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런 태도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여성들은 그런 면이 부족한 것 같다. 아무리 잘 나가던 여성이라도 결혼만 하면 끝이다. 결혼하기 전에는 외모 꾸미기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그것을 상품가치를 올리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어디에 써먹는가. 정말 자기가 가치를 창출했으면 활용까지 이어져야 한다. 어느 영역에 뛰어들어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교육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결혼을 전부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지성인 여성들의 자화상이다. 옷이나 외모가 아닌 마음을 바꿔야 한다. 철학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